

향가 대중화 현재화의 양상과 방향 탐색*

황 병 익**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현장감 있는 입체적 중등 교육 |
| 2. 향가 대중화 현재화의 양상 | 5) 캐릭터와 이모티콘의 제작 활용 |
| 3. 향가 대중화 현재화의 방향 탐색 | 6) 향가문학관의 건립과 운용 |
| 1) 향가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 7) 향가 스토리텔링의 활성화 |
| 2) 문학과 역사의 통합 답사 | 4. 마무리 |
| 3) 예술관광을 위한 가창 상황의
복원·재현 | |

국문초록

시가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향가를 대중화, 현재화하여 대중들의 곁에 둘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이미 여러 장의 향가 음반이 나오고, 경주·삼척·울산 등 지자체, 국립국악원, 경주챔버오케스트라, MBC 등 방송사, 서울예술단 등에서 향가 연극, 오페라, 가무악극 공연을 만든 것을 보면, 향가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

* 본고는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주관 제16회 신라학국제학술대회(2023년 10월 20일) 발표문을 수정하였다. 심도 있는 질문으로 도움 주신 강원대 함복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경성대학교 교수

쉬운 것은 향가 음반·공연콘텐츠로 대중의 뇌리에 남은 뚜렷한 작품이 적다는 것이다. 박범신의 소설 『은교』 중 ‘서지우의 일기 -〈헌화가〉’ 에 <헌화가>를 소개했고, 영화에서 그 구도를 잘 그려냈지만, 향가 기반 킬러콘텐츠로서 누적 관객 134만이라는 흥행성적은 아쉽다.

이에 본고는 향가 대중화 현재화 방안의 일환으로, 향가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향가에 대한 이해와 역사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관광을 위한 향가 가창 상황의 복원·재현을 강조했다. 중등 교육에서는 음반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보조 자료를 통해 현장감과 입체감을 다하고, 향가와 관련 서사의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활용해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고, 향가문학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향가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향가가 담은 무탈 기원, 종교적 소망, 추앙과 연모의 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논의의 출발은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우선 100년간의 해독 성과를 집약하여 최선의 현대어 원전 텍스트를 확정하고, 교육이나 전시는 향가의 풀이에 머물지 말고, 향가를 통해 역사를 생생히 소환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향가 아카이브를 통해 기존 예술작품 가운데 원작의 취지를 잘 살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국립국악원·문속회·윤소희 등 국악인의 주도하에, 송가인·조수미·윤세연·최예림 등 알려진 예술인과 숨은 고수들의 새로운 공연 자료를 만들어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향가의 전통을 살려 재현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MZ 세대의 성향까지 고려하여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상품을 만들어, 향가가 경주나 신라를 넘어 세계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향가, 종교관광, 예술관광, 캐릭터, 이모티콘, 굿즈(goods), 박물관, 아카이브, 표준 해독, 스토리텔링, 경주문화관광, 세계문화콘텐츠

1. 들머리

“문장은 도를 신는 수단이다. 바퀴와 끌채를 아무리 잘 꾸며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문장을 짓는 사람이 그 말을 기필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¹⁾ 이는 모두 쓰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학·그림·음악·무용도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 자체로 만족할 수 없고 독자·청중·관객이 필요로 한다. 향가 현재화에 앞서 경청해야 할 말들이다.

대중은 “교육받지 못한 계층, 산업혁명 이후에는 상품의 교환과 대량 소비 등과 관계되거나 스타에 열광하거나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의사 공동체”를 뜻하고,^{(최혜실)²⁾} 한때 가치 면에서 ‘별 볼 일 없는’,³⁾ 상업성·대량성·소비성·향락성 등 저질성으로⁴⁾ 이해했지만, 현대사회에는 대중성의 개념도 변화하여, 이젠 대중문화의 범주를 고정할 수 없고, 대중이라는 주체 역시 고정할 수 없다”. (S.Hall) Brecht는 “어제 대중적이었던 것이 오늘은 아니다. 오늘의 대중이 어제의 대중이 아니기 때문”이라 했다.⁵⁾ 대중음악을 즐기는 취향도 계층도 다양하여, 누군가는 트로트를, 누군가는 랩을 좋아하는 대중에 속한다. 웹툰을 좋아하거나 드라마·영화를 좋아하는 대중도 기본 소양과 취향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신라와 고려시대에 향가는 승려나 화랑이라는 지식인 계층이 즐긴 상층 문학으로서의 면모와 백성이나 불교 신도들이 가창하던 국민문학의 성

1) “文 所以載道也 輪轅飾而人弗庸 徒飾也”, “爲文者 必善其詞說 皆欲人之愛而用之”(周敦頤 지음, 朱熹 주석, 권정안·김상래 역주, 文辭, 『通書解』, 청계, 2000, 252쪽).

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上)』, 국학자료원, 2006, 458-459쪽.

3) 박성봉, 『대중예술 진정성의 미학』, 북썸, 2015, 11-12쪽.

4) 이노형, 『한국 전통 대중가요의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4, 26-29쪽 ; 崔南善, 『朝鮮常識問答續編』, 三星文化財團, 1972, 92쪽.

5) 토니 베넷, 박명진·정준영 외 편역, 대중성과 대중문화의 정치학, 『문화 일상 대중 -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6, 251-252쪽.

격을 지녔다. 이에 향가의 대중화·현재화는 이제 낯설고 전문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 공간, 또는 문화유산 답사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친근하고 재미난 콘텐츠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2. 향가 대중화 현재화의 양상

향가 대중화·현재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하다.⁶⁾ 대체로, 대중에게 널리 퍼지게 하는 활동을 대중화, 현대적으로 재해석·각색하는 것을 현대화, 현재 모습으로 재현하는 것을 현재화라 하는데, 향가는 이 셋이 고루 이뤄지고 있다. 향가 기반 대중음악, 일반인·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대중서도 이를 도왔다. 김무한·이용악은 대부분의 향가를 현대적으로 작곡·노래했고, 김명기(2008.11)는 <처용가>를 중세어로 고증해 노래했다. 울산 처용문화제를 비롯, 포항MBC,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챔버오케스트라, 국립국악원 등에서 향가를 연극·오페라·가무악극으로 공연했다. 경주어린이박물관에서는 <풍요>, <헌화가> 등을 작사·작곡하여 들려주고, 동국대 김호연 교수는 학생 그림 24점의 향가전시회를 열었다.

연극·가무악·공연·영상 자료 중 이채로운 콘텐츠를 일부 소개하면, 이운택 연극 <도솔가>는 2개의 해 중 하나를 먹어 치워 이변을 막는 구성이고, 가무극 <찬기과랑가>⁷⁾는 황룡사·월정사를 배경으로 기과와 보국의 사랑을 그렸다. 서울예술단 가무악 <舞天 散花歌>는 <도솔가>의 창작상황을 의례로 만들었다. “2개의 해가 나타나, 가뭄과 흉년이 일고 이름 모를 돌림병이 돌았는데, 왕이 남산에 올라 하늘에 기도하니, 白鶴이 날아오고 바위가 열리고 미륵과 천신이 나타나 황금빛 도

6) 황병익, 「신라향가 대중화의 양상과 방향 모색」, 『한국시가연구』 49, 한국시가학회, 2020, 33-77쪽; 황병익, 『노래로 신과 통하다 - 향가가 가진 신성한 힘』, 역락, 2021, 333-389쪽.

7) 정동극장·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기획, 2014.

솔천이 열리고, 곧 비가 내리고 해 하나가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국악공연 <천년의 소리, 향가>⁸⁾는 <우적가>·<안민가> 등의 향가를 재해석했고, 향가문화연구원에서는 “천년의 노래 신라 향가 발표회”(2012.12.25.)를 열었으며, 국제신문·부산문화예술시민연대는 향가발표회(부산예술회관, 2013.12.22.)에서 <원왕생가>·<처용가> 등을 노래했다. 국악방송은 어린이 국악 음반 “즐거운 이야기 여행, 향가에 그린 노래”를 기획했다. “처용설화의 게임 콘텐츠적 잠재력을 밝히고, OSMU 현황”이나 “서동(무왕) 설화의 게임콘텐츠 개발 사례”를 소개한 연구⁹⁾는 향가 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콘텐츠 중 영화 <은교>나 드라마 <서동요>는¹⁰⁾ 대중과 한층 가까워졌다. 박범신의 소설 『은교』(2010)를 원작으로 만든 이 영화(2012.4)에는 134만의 관객이 들었다. 영화는 “견우노웅≡이적요, 수로부인≡은교, 바위벼랑 철쭉≡절벽 아래 손거울”의 구도를 잘 그렸다. 목숨을 걸고 철쭉과 손거울을 가져다 마음을 전한다. <서동요>는 무왕의 출생부터 치열한 왕위계승·국가경영, 선화공주의 적극적인 삶, 국경을 넘은 둘의 러브스토리를 그렸다. 그동안 향가는 작가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음악·미술·대중서로 만들어졌고, 경주와 군위, 익산, 경주 엑스포공원, 울주, 죽령 등 해당 작품과 관련된 곳에 시비를 세워 기념하고자 했다. 이제 QR코드를 만들어 수준별 설명과 함께 창작 음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쉽고 친절한 안내판을 만들어야 한다. 향가 지도를 만들어 문화유적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비석이 왜 그 지역에 세워졌는지 연원과 취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주변의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관광 코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 황성공원의 안내문은 향가의 창작 스토리와 시가의 내용을 연관 지어 예술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8) 경주문인협회·군위문화원 주최, 삼국유사문화관, 2016.12.12.

9) 김나영·박상영 외, 『콘텐츠 개발의 현장』, 푸른사상, 2011, 1-275쪽.

10) 영화 <은교>(감독 정지우), 드라마 <서동요>(2005-2006, 극본:김영현, 연출:이병훈, 시청률 21.4%).

공연예술 기획은 여러 작품 후보군을 두고 전문가부터 단체 기관장과 담당자,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선에서 몇 단계의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게 한 후 킬러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향가 대중화·현재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본격적인 시작 시점이다. 경주시의원이 “경주의 향가와 향토 서정시를 스토리텔링 해 연극·영화·무용·음악 등과 어우러진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경주를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만들자고¹¹⁾ 계획은 향후 숙고해야 할 화두이다.

3. 향가 대중화 현재화의 방향 탐색

1) 향가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1) 향가와 이야기 여행

미륵사지 사리봉안기와 『삼국유사』 백제 무왕 조에는 무왕의 즉위와 선화공주와의 혼인, 미륵사 건립에 대한 역사와 문학이 켜켜이 쌓여있다. 연구 경과와 이야기의 골자를 대중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두어야 그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다. 유홍준의 일반·청소년 대상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석탑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은 성공한 스토리텔링이다. 수로부인 관련 문화관광사업은 영덕에서부터 삼척, 강릉에 이르기까지 이미 충분히 펼쳐져 있다. 대중들의 혼란이 없도록 촘촘한 검증 잣대를 적용하여, 안내문을 다듬은 후에 소개하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전시와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11) 황기환 기자, 『경북일보』 2022년 08월 17일, 굿데이 굿뉴스 (<http://www.kyongbuk.co.kr>). 한순희 의원 5분 발언.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와 내용물



▲미륵산(용화산)에서 내려다 본 미륵사지 동서 석탑과 연못



수로부인현화공원



②



③



④

사진 ①②④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 327-7

사진 ③ 현화로드라이브코스의 절벽
강원도 옥계면 금진리 149-3

(2) 향가 기념 시가비 투어

일연이 『삼국유사』를 완성한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일연공원을 조성했다. 경주도 황성공원에 향가 뜻을 만들었지만 찾는 사람이 적다. 향가를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 복원하고, 체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예술적 디자인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현화가>에서 순정공과 수로부인 서사의 공간은 경주에서 강릉까지 긴

구간에 걸치므로, 영덕-삼척의 해가사 공원-강릉 현화로, 태백산에 이르는 행차 길에서 바위벼랑에 핀 철쭉을 볼 수 있는 특정 공간과 함께 코스를 고증하여 안내 표지와 설명 QR코드를 만들어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충담사가 차를 끓여 茶공양을 하던 삼화령 충담사 코스를 월성 궁궐까지 되살려 경진하게 그의 행로를 걸으며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 두 작품에 대한 예술적인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대중들이 좀 더 많이 찾는 경주 어느 공간에 향가 작품이나 대표적인 몇몇 작품을 선정하여 경주가 향가 창작의 메카였음과 신라 사람들이 항상 나랏일을 걱정하고 그 안녕을 위해 함께 소망을 모았음을 알게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① 모죽지랑가 시가비(경북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회방사 입구). 주변 죽령에 퇴계 한시 비석.
- ② 계림(鷄林) 찬기파랑가 시가비(경북 경주시 교동)
- ③ 안민가 시가비(경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반길 현대호텔 옆 산책길)



▲④

▲⑤

▲⑥

④일연공원 제망매가 시가비(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3길 3-24)

⑤서동요 시가비(공남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⑥처용가 시가비(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68-1)

(3) 불교 관광과의 연계

사찰을 찾아, <제망매가>나 <원왕생가>에 그려진 극락을 향한 정진을 생각하고, <우적가>나 <원왕생가>의 일화를 들으며 참회와 지옥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일은 가치가 높다. <신과 함께> 1, 2에서 나태지옥, 천륜지옥을 실감나게 그려 대중들의 심금을 울린 것은 불교 관광의 필요성을 짐작케 한다. <우적가>는 불도를 닦는 석영재와 현재에도 악업을 저지르고 있는 도적을 통해 불교의 바른길을 제시한다. 『열반경』에는 아버지를 죽인 阿闍世王에게도 “대왕이여, 신이 부처님께 말씀 듣기로 지혜로운 자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나쁜 짓을 짓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지은 뒤의 참회니라. 어리석은 이도 둘이 있으니 하나는 죄를 짓는 이요, 하나는 짓고 감추려는 자이니라. 나쁜 일을 이내 참회하고 부끄러워 하며 다시 짓지 않으면, 마치 흐린 물에 맑은 구슬을 넣으면 구슬의 힘으

로 물이 곧 맑아지는 것과 같으며, 또 구름이 걷히면 달이 청명해지듯이, 죄를 짓고 참회하는 것도 그와 같다. 왕께서 만약 참회하시고 참회한 생각을 품으시면 죄가 곧 소멸되어 본래와 같이 깨끗하게 되리이다.”¹²⁾ 했고, “우리가 옛날부터 지은 악업들은 모두 無始의 貪瞋癡에 의한 것이고,



① 錫杖寺址 ② 석장사지에 남겨진 기와조각 ③ 석장사지 출토 벽돌 ④ 운주사 지옥의 모습 ⑤ 경주 遠願寺 冥府殿 벽면의 지옥도 拔舌·刀山·火湯 지옥 등을 그림 ⑥ 직지사 명부전 벽면의 열라대왕도(閻羅大王圖). 지옥을 관장하는 신. 인도신화의 yama에서 온 말로, 죽어 남쪽 지하에 살면서 망자의 생전 행위에 따라 천상이나 인간, 또는 지옥 등 어느 한 쪽으로 보낸다고 한다.

12) “大王 且聽臣聞佛說 智者有二 一者不造諸惡 二者作已懺悔 愚者亦二 一者作罪 二者覆藏 雖先作惡 後能發露 悔已慚愧 更不敢作 猶如濁水置之明珠 以珠威力 水即爲清 如煙雲除 月則清明 作惡能悔 亦復如是 王若懺悔懷慚愧者 罪即除滅 清淨如本”(曇無讖, 『大般涅槃經』 卷19, 梵行品第八之五; 『高麗大藏經』 9, 高麗大藏經研究會, 1985, 167쪽).

身語意에서 소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일체를 참회한다”¹³⁾ 했다. <우적가>는 90세 고령에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떠나는 釋英재의 에피소드를 그렸다. 도적을 만나 “지금까지 계율을 어기고 무기로써 살생을 일삼았지만, 다시 회개·積善하면 죄가 곧 소멸되어 본래대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도적들에게 “참회는 실수를 만회하고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¹⁴⁾ 그 결과 도적들은 자신들의 삶을 뒤우치고 수행길로 접어들었다.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개인·가족·집단의 안녕·무사와 평화를 소망함에 더하여, 향가에 담긴 禮敬과 供養, 계율과 참회, 수행과 존승, 공동체의식을 공부하고, 템플라이프나 템플스테이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신라와 고려 향가에 담긴 마음은 오래 전수될 것이다.

2) 문학과 역사의 통합 답사

향가 유산에는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삼국유사』에 설화적 요소, 불교적 신이를 가미하다 보니, 실증에 어려움도 생긴다. <서동요>와 <모죽지랑가> 스토리가 그렇다. <원가>는 사실적으로 적었지만, 그 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원가>에 등장하는 신증 서사는 자신을 등용하겠다는 효성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논공행상에 대한 원망(불만)을 그렸다고 보지만, 효성왕(737-742 재위) 당시 역사, 즉 효성왕 재위 다음 해(738)에 당에서 박씨 왕비를 책봉했는데, 3년 3월에 이찬 김순원의 손녀를 맞아 왕비로 삼고 당에서 그녀를 왕비로 책봉(740)한 사실을 통해, 효성왕 초기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읽어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까닭을 알 수 있다.¹⁵⁾

13) “菩薩 自念 我於過去無始劫中 由貪瞋癡 發身口意 作諸惡業 無量無邊 若此惡業 有體相者 盡虛空界 不能容受”(『大方廣佛華嚴經』卷40, 普賢行願品 懺除業障).

14) 서철원, 『한국 불교시의 기원 - 의상과 원효 그리고 균여』,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3, 220쪽.

15) 조범환,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 2022, 150-151쪽.

효성왕 3년(739) 3월, 왕은 동복동생 헌영(憲英)을 파진찬으로 삼았다 갑자기 태자로 책봉했다. 김순원의 손녀를 왕비로 들인 다음 약 2개월 후에 취한 이 조치는 어떤 까닭일까. 이는 왕비를 맞이하여 후사가 태어나면 그 아들을 태자로 삼을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 동모제를 태자에 책봉하여 김순원 세력을 견제한 것이다. 다분히 뒷날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이다.¹⁶⁾ 효성왕은父皇덕왕의 안정된 왕권에 근거하여 순조롭게 전제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외척세력인 김순원 계의 일방적 힘의 우위로 인해 끊임없이 간섭을 받아 정치 현실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가>에서 자신을 흔들리는 물결의 모래에 비유하고, 세상 모든 것을 여윈 듯한 심정을 표현한 것은 효성왕 당시의 정치 현실 위에서 파악해야 한다. <원가>는 있어야 할 현실과 있는 현실의 괴리에 대한 신층의 착잡한 심정을 담은 작품이다.

원성왕대 <우적가>의 역사를 살피는 것도 흥미롭다. 785년, 선덕왕(宣德王, 780-785)이 죽자 귀족회의에서는 김주원(金元周)을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로 추대한다. 그러나 조카인 상대장등(上大長等) 경신(敬信), 원성왕이 여러 사람을 위협하여, 먼저 궁에 들어가 왕이 되었고, 주원은 화가 두려워 溟州로 물러났다. 그 과정은 이러하다. 원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꿈에, “幞頭를 벗고 흰 샅갓을 쓰고는 12현금을 들고 天官寺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는 것”을 阿滄이 은밀히 해몽하고, 北川神에게 제사 지내니, 갑자기 시냇물이 불어 즉위 0순위였던 주원이 복천을 건너 오지 못하여 왕위를 빼앗겼다는¹⁷⁾ 역사는¹⁸⁾ 궁에 들어간 원성왕(김경

16) 조범환, 위의 책, 157-158쪽.

17) “夢脫幞頭 著素笠 把十二絃琴 入於天官寺井中”, “王乃辟禁左右 而請解之(阿滄)曰”, “王曰 上有周元 何居上位 阿滄曰 請密祀北川神可矣 從之”, “周元 家在北川 忽川漲不得渡 王先入宮即位”(『三國遺事』卷2, 紀異 第2, 元聖大王).

18) 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탐구당, 1987), 123쪽 ; 이장웅, 「신라 元聖王의 身空 詞腦歌와 관련 설화의 역사적 이해」, 제16회 新羅學國際學術大會 『향가 신라를 노래하다』,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3, 44-50쪽.

신) 세력이 폭우를 하늘의 명이라고 빙자하며 김주원을 추대한 세력들을 협박한 것이다. 원성왕 당시의 잦은 재이(災異)와 사회·정치적 변동을 왕조 초기의 역사와 연관 짓는 일은 흥미로울 것이다.



慶州 關川堤防修改記(경주시 동천동 산56-1) 숙종 33년(1707)에 경주 시내의 홍수를 막기 위해 높은 독을 쌓은 일을 기념하여 새긴 銘文. 『삼국유사』 원성왕 조의 기록, 그리고 여기에 “서쪽으로 흐르는 關川 물살에 고을 동편 계방이 무너졌네. 나무와 돌로 높은 독을 쌓은 것이 고려 때부터였네”(關川西注 邑基東圯 高擁木石 粵自麗氏)라 한 것을 보면, 이곳의 홍수는 신라, 고려, 조선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관광 중에, 어려운 정치 현실 속에서 불사를 통한 정신적 통합을 꾀하던 선덕여왕의 모습을 생각하거나 <풍요>에 나오는 벽돌 등을 확인하는 일, <悼二將歌>(=思功臣歌)에 등장하는 두 장군의 비장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은 관광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 선덕여왕 표주영정(정부표 준영정98호, 손연칠 화백, 동국대 명예교수, 符仁寺 소장.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967-28)
▶ 壯節公 申崇謙장군 유적지 안내판(대구시 동구 신승경길 17). 왕건이 후백제 견훤에 포위되었을 때, 왕건을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 신승겸의 뜻을 기려 殉節之地를 기념하였다.



3) 예술관광을 위한 가창 상황의 복원·재현

향가 노래 원형의 재현은 시급하지만, 관련된 기록이 전무하므로 신뢰도 높은 공연예술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도술가> 서사(경덕왕 19년, 760)를 보면, 월명사가 “자신은 國仙의 무리에 속하여 향가만 알 뿐 범성(梵聲, 梵唄)을 모른다.” 했다. 월명사도 이때는 범패가 필요한 순간임을 알고 있었고, 향가가 범패를 대체하기도 했다는 말이다. 이른 아침에 살별(彗星)을 보고 일곱 명의 승려가 7일 동안 『열반경』과 『반야경』을 원¹⁹⁾(838년 10월 22일) 의례는 <도술가>·<혜성가>의 상황과 상관성이 높고, “남녀와 승려40명, 속인이 함께 절에 모여,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예불·참회를 하였는데, 이는 신라풍속을 따른다. 황혼과 새벽의 예불·집회는 당(唐) 풍속에 따르지만, 그 밖의 의식은 신라어로 한다.”에서²⁰⁾ 신라어로 의식을 진행했다니, 이를 잘 추적하면 당시 불교음악의 교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뒤의 자료는 당시 중국 산둥반도의 사찰 적산원(赤山院)에 신라풍(향풍)·당풍·일본풍 범패가 공존했음을²¹⁾ 알려준다. 여기서 “대중이 부르는 범패는 신라음으로, 당풍과는 다르고 일본과 비슷하고”,²²⁾ 신라음과의 유사성을 좇아 오늘날 일본의 불교의식과 범패를 조사해보니, “현재 일본 범패(쇼묘, 聲明)는 엔닌 이후에 시작된 당풍 범패가 실질적인 출발”이라 했으니,²³⁾ 동아시아 범패와의 비교 연구에서 향가의 음악적 근원을 구명할 수 있겠다. “당풍 범패가 들어오기 전, 신라불교 의식·음악이 일본에 끼친 영향이 크고”, “오늘날 우리네 범패를 들으면, 각 지역의 민요토리를 닮았고, 현재 전승되는 궁

19) 圓仁 저, 申福龍 역, 『入唐求法巡禮行記』, 정신세계사, 1991, 46쪽.

20) “男女道俗 同集院裏 白日聽講夜頭禮懺 聽經及次第 僧亦其數卅來人也 其講經禮懺 皆據新羅風俗 但黃昏寅朝一時禮懺 且依唐風 自餘並依新羅語音”(839년 11월 16일, 圓仁 저, 위의 책, 118쪽).

21) 宋芳松, 『韓國音樂史論攷』,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89-90쪽.

22) “大衆同音 稱歎佛名 音曲一依新羅音 不此唐音 … 音勢頗似本國”(엔닌, 『入唐求法巡禮行記』 권2).

23) 윤소희, 『세계 불교음악 순례』, 운주사, 2021, 84-85쪽.

중악과 범패를 들어보면, 서로 닮은 특정 가락이 있어 신라의 소리가 손에 잡힐 듯 느껴진다.”²⁴⁾ 했으니, 인도·중국 범패, 일본의 쇼묘·궁중악, 지역의 민요토리 등에 대한 국악계의 성과를 계속 살펴야 할 것이다.

당에서 범패를 배워온 쌍계사 진감선사가 신라 전역에 범패를 퍼뜨렸는데, 일본 기록에는 엔닌 스님이 唐에서 배워 온 범패를 종류별로 나누어 가르쳤다는 기록과 함께 악곡까지 적시되어 있으니 당시 범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엔닌으로 인해 형성된 일본 쇼묘가 불리는 불교의식은 사개법요(四箇法要, 시카호요)였다. 사개법요에는 唄·散華·梵音·錫杖이 있는데, 엔닌이 가르친 범패악곡을 담고 있다. “752년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개안회(大佛開眼會)는 당시 천황과 왕후가 참석한 가운데 출사한 승려가 약 1만이었고, 이 승려 가운데 唄師 10명, 散華師 10명, 梵音僧 200명, 錫杖僧 200명이었다.”²⁵⁾ 하니, 동아시아 범패의 전통을 잘 살리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이에 향가의 음악적 재현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전해진 신라악(新羅樂), 수·당(隋唐)의 불교음악, 산화(散花)²⁶⁾ 등 서역의 불교음악, 인도·남방·중국·대만·티베트·실크로드 등 불교음악²⁷⁾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²⁸⁾

다음 도표에는 진감선사가 신라에 범패를 널리 퍼뜨렸다는 비석, 통일신라 감은사 석탑에서 발견된 신라 악기 모형으로서 범패나 향가를 가창할 당시의 정황을 짐작케 한다.

24) 윤소희, 위의 책(2021), 86-87쪽.

25) 윤소희, 위의 책(2021), 85-86쪽.

26) 운문사 강원에서 꽃을 따서 길목이나 스님들께 뿌리며 경을 독송한 예가 있다. 전한다. 산화(散花)의 유사한 예로 <자비도량참법>이 있는데, “꽃비가 내리고...”라는 부분에서 꽃잎을 따서 바구니에 담아 뿌린다. 영산재 내림계 바라의 향화청 전후로 “산화락-산화락-”이라 된다.(윤소희, 「신라인의 불교의식과 음악II-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하여」, 『한국음악연구』 41, 한국국악학회, 2007, 173쪽). 이들 의식과 <도술가> 의식의 유사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27) 윤소희,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민속원, 2013, 30-71쪽.

28) 윤소희, 『입당구법순례행기』 신라인의 불교의식과 음악(1), 『晩堂李惠求博士 百壽頌祝論文集』, 동간행위원회, 2008, 422-423쪽 참조.



◀쌍계사雙溪寺 진감선사비眞鑿禪師碑
 “평소 범패를 잘했는데, 그 목소리가 금속 같았다. 측조側調에 나를 것 같은 소리는 상쾌하면 서도 슬프고 구성져서, 능히 천상계의 모든 신 불로 하여금 환희케 하였다. 길이 먼 곳까지 흘러 전함에, 배우려는 사람이 승당을 가득 메우니,(선사는 이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²⁹⁾는 쌍계사 眞鑿禪師(774-850)가 범패를 잘했음을 알려준다.

감은사感恩寺터 서3층 석탑 전각모양 사리기 내함 ▲▼ 통일신라. 전각 모양 사리기 모서리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들이 새겨져 있다. 악기는 비파, 동발, 옆으로 부는 피리, 요고 등인데, 연주하는 천인들이 역동적이다. 동발은 오늘날의 심벌즈보다 작은 크기로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지금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금속 타악기로서 유일한 사례이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악원, 『우리 악기, 우리 음악』, 통천문화사, 2011, 51쪽.

▲옆으로 부는 피리 ▲비파 ▲요고 ▲동발

그리고 다음 악보는 미얀마의 <발원>과 <자비송>을 채보한 것으로, 향후 불교음악 비교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나옹화상의 <서왕가>가 내용적 흐름이나 가사의 배열을 볼 때 범패 중 화청(和淸)³⁰⁾과

29) “雅善梵唄 金玉其音 側調飛聲 爽快哀婉 能使諸天歡喜 永於遠地流傳 學者滿堂 誨之不倦”(최치원 찬, 최영성 校註, 『校註 四山碑銘』, 이른 아침, 2014, 208쪽).
 30) 和淸이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齋 의식에서 참여한 모든 이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 의식에 강림하길 발원하는 다양한 불보살과 일체 성현을 노래로써 청하는 것”을 말한다.(노명열, 『불교, 화청의식 복원에 관한 연구』, 북랩, 2013, 120쪽). 이는 불교 포교의 한 방편으로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 사설 소리조에 교리를 쉽게 만들어 올린 음악으로, 징·북의 반주로 일정한 장단이 없이 사설에 따라 단락지어 나간다. 현전 화청 “지심결정 지심결정 일회대중 일심봉청(至心乞淸 至心乞淸 一會大衆 一心奉淸)/이 세상에

비슷한 것처럼, 동아시아 범패와 불교계 향가의 예술적 원형은 관계선상에 놓일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 음악자료로써 시가를 복원하고, 역사와 고고학 유적, 불교미술 분야의 자료를 활용하여 복원해나가야 한다.

〈악보 11〉 발원

원형: 판디따라마 승단과 대중
채보: 윤소희

〈악보 8〉 자비송

원형: 판디따라마 승단과 대중
채보: 윤소희

發願(미안마). 윤소희,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민속원, 2013), 124쪽. ; 매타(자비송, 미안마). 윤소희, 위의 책, 121쪽.

나을 적에 남녀노소 존비귀천을 물론하고/이 세상에 나올 적에 빈손 빈 몸 들고
나와/물욕탐심 내지 마오./삼일 수심 천재보요 백년탐물 일조진이라/사홀이나
뉘은 마음 일천 해에 보배 되고/백년이나 탐한 재물 하루아침 티끌이라”(국립국
악원/서울음반, 박송암(객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보유자)는 나옹회상
<서왕가>의 내용과 흡사하다.

<도천수대비가>는 천수천안관음보살을 향해, 거룩하고 탈속적인 자비를 실천하여 아이의 안질환을 낫게 해달라는 발원문이다. 위의 발원이나 자비송은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불교음악을 통해 신라와 고려시대 향가의 쓰임과 예술적 원형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현장감 있는 입체적 중등 교육

고교 향가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³¹⁾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 문(Q)	답 변(A)
고등학교 문학 교육에서 향가 장르의 교육 비중은 적절한가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나 향가의 비중 극히 미미. 국어 교과 중 문학의 비중 30% 중에 고전시가 비중 미미. 문학에서는 현대/고전/세계의 비중이 5:4:1 정도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외의 향가 작품을 거의 다루지 못하는 실정.
향가는 장르의 성격상 문학과 역사, 문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향가 작품 자체가 적어 중요도 인식이 약하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강구하는 데 어려움 있음. • 작품 풀이와 배경설화 소개 정도에 그침. 문학 교육에서 역사나 당대 문화까지 설명하기에는 어려움. 늘 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기는 한계.
향가의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방안(예. 한국문학관 등 체험 공간 마련, 역사/문화예술적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고 쉬운 향가 번역, 관련 스토리 제공, 문학/역사/문화를 아우르는 교재와 동영상 개발 시급. • 교과 간 융합 수업 권장. 시대적 거리가 있어 접근 어려운 장르, 역사와 문학을 아우르는 짙막한 영상 자료를 통해 관심과 호기심 유도 필요.
현재의 향가 교육 (교수, 학습)과정에서 변화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에 다양한 작품을 싣고, 활용도 높은 고급 교육 자료 개발 시급. • 작품의 어휘, 구절, 전체 해석 어려움. 양주동, 김완진 이후 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교과서에 적극 반영하여, 작품 해석-작품론 정리 필요.
여타 향가 교육, 대중화, 현재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향 제시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이나 사랑 등 학생들의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작품 제시. • 현재적 의미가 중요하므로, 내용이 명료하고, 배움의 가치와 활용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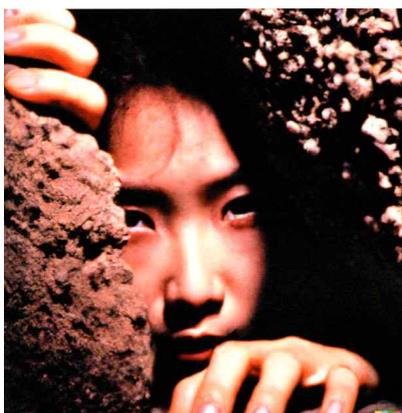
31) 이 조사는 동천고등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의 국어 교사 신원기, 서형오, 백순구 선생님의 서술식 응답을 토대로 종합·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전시가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담고 있기에, 시대는 달라도 내면 정서는 요즘과 멀지 않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에 아파하고, 슬픈 여운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향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은 매우 많다. 둘을 대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향가를 이해하고, 향가를 기반으로 작곡한 무수한 음반을 들으며 향가가 문학으로서 전달하고자 한 세계에 접근하는 교육은 미래의 교육이 가야 할 정해진 길이다.

신라 밝은 날에 나후라의 인고의 하늘 밤들어 달빛이 寂하여라 저머는 보꽃 같은 살갓이 疫神의 손에 문드러지던 때 내 가슴에 석류알이 쏟아졌나니	구름 갠 바닷가에 일곱 마리 용의 오색 비늘이 번뜩인다 해가 뜬다 네 참아라 꽃아 桃李야 휘젓지 마라 역신이야 처용 탈만 보면 줄행랑이어라 천리를 가리러, 만 리를 가리러, 速去千里하라 산이여 내여 길 열어라 나무아미타불	억만 세계 겹겹의 구슬의 광망으로 땅아 비추어오라 길 밝혀라 처용아 열두 나라 지은 이름 長樂太平하랴다. ³²⁾ (處容 巫歌, 신석초)
들깨지 마라 이 꽃새벽의 꿈의 꽃잎으로부터 환장할 누릴 꿈의 버금의 둘째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형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결그러운 네 빠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우리는 神經을 앓는 中風病者로 태어나 全身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선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라.
시리도록 허연 이 霧下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손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짙한 설움을 빨았더냐.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나. ³³⁾ (기형도, <가을 무덤 —祭亡妹歌>)
풀씨마저 피해 나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칩. 질척이는 뜰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치며 河기로 떠내려갔음에라.	

32) 신석초, 『바라춤』, 미래사, 1991, 120-122쪽.

33)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158-159쪽.



김태용, 남해 금산, 『생성 예술의 시대』, 동아시아, 2023, 195쪽,

신석초의 <처용 무가> 는 아내의 부드러운 살갓이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 그리고 역신이 처용의 탈을 보고 저 멀리 도망가기를, 아미타불에게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기원을 함께 표현하고 있으니, 아내를 찾아든 역신에 대한 원망(신라 처용가), 역신에 대한 공격적 의지(고려 처용가)와 함께 부처에 대한 기원까지 담았으니 민간 의료적 사고, 무가적 사고, 불교적 기원이 고루 어우러진 작품이다.

기형도의 <가을 무덤 -제망매가>는 1975년 5월 바로 위 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에 이르자, 이 사건으로 인한 깊은 상흔을 표현하고 있다. 파리한 얼굴, 망초꽃 이불, 빛바랜 단발머리, 곱끄러운 네 뼈다귀는 누이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저 길게 잠을 자는 듯 여기고 싶은 마음은 남은 미련을 의미한다. 누이에게 술을 부으면, 술 방울이 마치 내 눈물처럼 튀어 올라 온몸을 뒤흔든다는 표현은 누이의 죽음을 두고 절규하는 모습으로 감정의 절정이다. 월명사의 <제망매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세속적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다면 이 작품은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경험을 떠올려 공감해나가는 일은 문학교육의 이상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향가의 작품 세계를 AI 기술과 연관 짓는 일은 미래 교실의 자연스러운 풍경일 것이다. 김태용 감독이 이성복 시인의 <남해 금산>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를 바탕으로 DALL·E에게 이 시가 지어진 1986년에 어울리도록 영화 주인공 이미지와 콘셉트를 만들기 달라 요구했다. 그랬더니 한 번

도 겹치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었고, 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위, 아래 그리고 옆으로 시의 문장들을 이미지로 바꾸어 보았더니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다.³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AI를 다양하게 활용해 자신이 이해한 문학 작품을 각종 매체로 재구성하고, 결맞은 이미지와 캐릭터 형상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업 진행의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창의적 구상의 폭을 넓히고, 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문학과 문화콘텐츠(산업)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것이다.

앞의 도표에서 신라시대와 현대사회는 시대적 거리가 1,000년 이상으로 멀어 역사와 상황을 공감하면서 현재적 의미를 찾아내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청소년 집단인 신라 화랑의 정치 사회적 의미, 시대적 역할을 정리하여 현대 청소년의 활동이나 관심사와 견주어 본다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지향 가치를 알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라 화랑 관련 자료 조사³⁵⁾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 항목	세부 내용
나이	수련 기간은 대개 15-18세
신분	화랑은 진골 출신만 가능. 낭도는 진골, 6두품, 그 이하 신분 가능
인원	죽지랑의 낭도 137명, 효종랑 낭도 1천 명. 화랑에 따라 인원 다양
창설 시기	진흥왕 37년(576) 창설(삼국사기), 진흥왕 23년(562) 대가야 정벌 때 화랑 사다함이 중군. 그보다 이전 창설
창설 취지	창설 목적은 ‘知人’³⁶⁾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발굴, 동용
학습 내용	○道義(風月道) 연마. 유·불·선 3교 ³⁷⁾ ○歌樂 학습. 가악은 단체정신 고양, 집단 사기 진작(예. 진흥왕대 <徒領歌>) ○山水 遊娛. 지리 학습, 체력 단련, 遠行을 통한 협동심 고양
사회 진출	○“현명한 재상과 충성스런 신하가 여기서 솟아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김대문, 『화랑세기』) ³⁸⁾ ○660년, 백제 정벌 당시,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16세 화랑 관창을 모 대감이 太宗에게 천거하여 정벌군 副將이 됨 ³⁹⁾

34) 김태용, 남해 금산, 『생성 예술의 시대』, 동아사이, 2023, 195쪽, 198-231쪽.

35) 노중국, 『역사의 맛수 -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지식산업사, 2020, 85-86쪽 참조.

	○김유신을 비롯하여, 그의 아우 흡순(欽純, 欽春), 품일(品日)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
사회적 기여	○“화랑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고쳐 선에 옮기게 하고, 뒷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순히 하니 五常과 六藝, 三師와 六正이 왕의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 ⁴⁰⁾ ○진흥왕의 영역팽창은 6세기 이래의 대내적 충실함과 대외조건의 유리함이 맞물린 결과적 산물. 전략적·경제적 요충지인 한강유역, 가야일원의 장악은 삼국통일의 기반 마련. ⁴¹⁾ 화랑도는 삼국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의 기반 마련

<모죽지랑가>는 죽지랑이 위풍당당하던 시절과 화랑과 죽지랑의 위세가 약해진 시절을 대조적으로 그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극대화하였다. 통삼 이전 화랑의 활약상과 그 이후 화랑과 인재 등용 방식의 변화양상을 역사적으로 대비하면서⁴²⁾ 작품을 이해한다면 학습자 스스로 득오곡이 죽지랑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감정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것

36) “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羣遊 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知人’은 “사람을 알아봄, 남의 품행과 재능 등을 잘 알아본다”, 여기서 파생한 知人善任使은 “밑에 있는 사람의 인품이나 재능을 식별하여 임용하기를 잘함”, 知人則哲은 “사람의 품행과 재능을 식별하여 임용하기를 잘함”, 知人之鑑은 “남의 품행과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을 뜻한다.
37) “且如入則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37년).
38)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郎世記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39) “官昌 一云官狀 新羅將軍品日之子 儀表都雅少而爲花郎 … 年十六 能騎馬彎弓 大監某薦之太宗大王 至唐顯慶五年庚申 王出師 與唐將軍侵百濟 以官昌爲副將”(『삼국사기』 권47, 열전7, 관창전).
40) “自此使人梭惡更善 上敬不順 五常六藝 三師六正 廣行於代”(『삼국유사』 권4,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
41) 이강래, 삼국의 성립과 영역 확장, 『한국사 3』, 한길사, 1994, 223쪽 참조.
42) 통일 전쟁 때는 군사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했지만 이후에는 관료적 능력이나 정치적인 능력이 요청되었다. 화랑도의 인재 교육과 선발, 관료 진출 창구 역할은 당시 국학(682)을 통한 재교육으로 옮겨지고, (李基東, 花郎像의 變遷에 관한 覺書, 『新羅文化』 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8, 110-112쪽) 이후 독서삼품과(788)란 고시제를 통해 국학의 관료 선발제를 보완하려 하였다.(朱甫墩, 新羅 花郎徒 研究의 現況과 課題, 『啓明史學』 8輯, 啓明史學會, 1997, 114-118쪽).

이다. <찬기과랑가>에서 기과랑을 잣나무에 견주어 감탄과 찬사를 보인 표현은 요즘 학생들에게 매우 낯설기 짝이 없을 것이다. 기과랑의 인품이나 기개, 강직한 성품을 자연물에 견준 것은 신라 사회가 화랑을 미륵에 견주어 추앙할 만큼 사상적·사회적 통합과 질서정연한 지향점을 희망했다는 시대정신을 이해할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짐작케 할 수 있다.

중등교육에서 학문의 경계와 분과를 넘어서고, 학계와 대중 사이의 장벽을 허물면서도 연구 영역의 중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아 가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력이다.⁴³⁾

5) 캐릭터와 이모티콘의 제작 활용

캐릭터는 문화콘텐츠의 한 분야로, 좁게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영화·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주체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의미하고, 넓게는 문화콘텐츠뿐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콘텐츠를 지식재산권으로 활용한 창작물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화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캐릭터의 대상으로는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주체뿐 아니라 실존인물·동식물 등의 자연으로부터 각종 인공물 등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캐릭터산업은 ‘캐릭터를 고안, 창작한 저작자가 직접 상품화하거나 캐릭터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모든 사업’을 총칭한다.⁴⁵⁾

다음은 경주에서 금관, 왕비, 화랑 등을 캐릭터로 만든 예, 제주에서 해녀나 동백을 캐릭터로 만든 예인데, 현재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서 두루 활용하고 있다.

43) 서철원, 「2022 신라 문학 연구의 세 갈래 길 -사상, 소통, 확산」, 『신라학리뷰』 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3, 135쪽.

44) 오상훈 외, 캐릭터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 조사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45) 고정민, 『문화콘텐츠산업의 이해』, 이다북스, 2021, 5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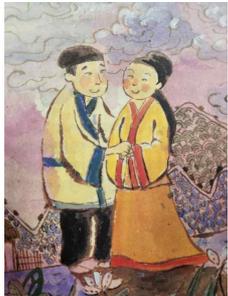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방향) 1. 경주시청의 SNS 금이관이 캐릭터 구상 2. 신라의 왕비와 화랑 캐릭터 (국립경주박물관 기념품점) 3.4. 제주도 해녀 캐릭터 상품. 스누피와 해녀의 결합 캐릭터도 있다 5. 경주 엑스포대공원 원화와 화랑 캐릭터 마스크트

다음은 향가 관련 대중도서에서 향가와 그 설화를 소개하기 위해 활용한 캐릭터이다.

캐릭터 분류 기준은 다양한데, 존재 및 시각 요소 여부를 기준 삼아 분류하면, 실존인물을 묘사하여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갖는 실제 캐릭터, 인간의 창작 활동을 통하여 가공된 이미지를 보유한 캐릭터를 뜻하는 창작 캐릭터, 캐릭터의 특성이 모두 어문(문자)으로 나타나는 어문 캐릭터,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하나의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로 인식되는 시각 캐릭터 등이 있다.⁴⁶⁾ 『삼국유사』는 역사성과 문학성(설화성)을 함께 가지므로, 이 네 가지 캐릭터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다.

46) 고석만·김진규·김락균 외, <캐릭터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09-2013).



▲서동요 2(11)



현화가 ▲위 2(79), 아래 1(104)



▲찬기파랑가 2(126)



▲찬기파랑가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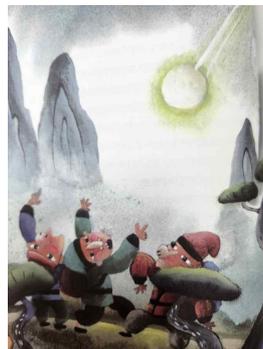
제망매가 ▲1(136) ▼3(24)



▲안민가



▲원가 1(120)



▲혜성가 1(78)





▲강도짓을 하면서 창과 칼로 악업을 짓는 도적들을 깨우쳐, 불도를 닦는 제자로 만든 <우적가(遇賊歌)>의 영재 스님(그림 : 허원희, 경성대 미술학과)

위 그림47)을 보면, <서동요>는 무왕이 선화공주에게 청혼하는 장면, 온화한 표정으로 선화를 맞이하는 모습을 개성적으로 그렸고, <헌화가>는 견우노옹이 수로부인에게 벼랑에서 목숨 걸고 꺾어온 꽃을 바치는 모습, 신물인 용이 수로부인의 미모에 반하여 납치해가는 장면을 그렸다. <안민가>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본분을 다하는 모습,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의 높은

이상과 굳건한 의지를 형상화하였다. <처용가>는 역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나 춤을 추며 분노와 우려를 삼키는 처용을 그렸다면, <원가>는 효성왕이 세자 시절에 잣나무 아래에서 신충과 맹약하는 장면을 그렸다. <혜성가>는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 국가에 불길한 일이 생길까 놀라는 화랑들의 모습을 그렸고, 옆의 <우적가> 그림은 자신을 창검으로 위협하는 도적을 두려워 않고 회개시키는 영재 스님의 담대한 모습을 그렸다. <제망매가>는 누이를 잃은 월명사의 눈물과 극락에서 재회하는 날의 반가움을 그렸다.

시가의 내용이나 설화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디테일을 더하고 흥미와 감동을 더하여 대중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예컨대, <서동요>는 늦은 밤에 무왕과 선화공주가 다정하게 안은 모습을 보고, 소문을 퍼뜨리는 아이들, 쫓겨나는 선화공주 앞에 나타나 자신의 욕심으로 선화공주를 난처하게 만든 과오를 뉘우치고 사과하며 청혼하는 무왕의 모습, 백제 미륵사와 신라 황룡사 9층탑을 통해, 두 나라가 화해하고 불교로 하나 될 날을 기약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혜성가>는

47) 【그림 인용정보】 책번호-()안은 페이지. 1. 서정오, 『이야기로 읽는 우리 옛노래』, 주니어랜덤, 2004. 2. 권영상 글, 황인옥 그림, 『향가와 고려가요』, 살림어린이, 2008. 3. 이가영(seri), 『만화로 읽는 수능 고전시가』, 꿈을 담은 틀, 2015.

바다 위 신기루를 보고 봉화를 올리던 그날의 해프닝, 혜성을 보고 왜군으로 오인하여 봉화를 올린 해프닝, 제의에 참석한 왕과 화랑. 제의를 주재하는 용천사의 모습, 그리고 기원을 드린 후에 불길한 기운의 혜성이 길을 깨끗이 쓸어주는 빗자루별로 변화하는 모습 등을 노래, 설화와 함께 소개해야 할 것이다. 향가 캐릭터⁴⁸⁾는 시가와 관련 서사를 대중들에게 손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전달방식이다. 향가에는 신라인의 집단적 염원과 개인적 소망, 화랑·승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적 삶을 담고 있어 대중과 세계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컨대, 단석산 신선사는 김유신의 수련처로 구전되는데, 신선사지 마애불 공양상의 소년상과 財買井(김유신의 생가·종택의 우물)지 토우에서 모자를 쓴 소년상이 닮았으니,⁴⁹⁾ 화랑의 캐릭터 제작에 참고할 만하다.

문화할인(Cultural Discount)이라는 용어를 쓴다. 특정한 지역문화권에서 제작한 문화상품이 다른 지역의 문화권으로 넘어가면 가치·신념·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소구력(訴求力)⁵⁰⁾이나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문화할인에는 언어는 물론 정치·경제·문화·지리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요소는 민주화의 정도, 역사적 관점 등, 경제적 요소로는 국민소득, 환율, 무역수지 등, 문화적 요소에는 종교·언어·관습·취향 등이 있다.⁵¹⁾ 언어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미국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는 것도 문화할인율이 낮기 때문이다.⁵²⁾

48) 고려향가 <도이장가>라면 ❶ 후백제 견훤의 포위망을 뚫고, 왕건을 대신해 싸우다 전사한 충성스러운 신하 김낙과 신승겸 ❷ 예종의 서경 방문, 김낙과 신승겸 장군을 기리는 연극의례. ❸ 김락과 신승겸의 상 앞에서 넋죽 절하며 감사를 표하는 예종의 모습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갈 수 있다.

49) 최광식, 新羅의 花郎徒와 風流道, 『史叢』 87,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6, 11쪽.

50) 광고가 시청자나 수요자의 사고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한다.

51) 나송희·이중훈 외, 『ALL ABOUT 문화콘텐츠』, 나무자전거, 2021, 36쪽.

52) 콜린 호스킨스 외, 장병희 옮김, 『미디어 경제학 - 뉴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에 대한 경제학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62-63쪽.

한국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지만, 대중들이나 세계 관광객들에게 현재와 시간적 거리가 천 년이 넘는 과거 문화유산인 향가의 문화할인율을 낮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라인의 삶과 정치·사회·문화를 현대사회에 맞도록 쉽고 보편적 인간적 감정으로 풀어서 전달해야 한다. 문화콘텐츠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게임, 클래식, 음악,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은 문화장벽이 낮고, 드라마·대중음악·영화 등은 상대적으로 문화장벽이 높으므로 대중화·현재화의 장르 선택과 전달방식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향가 캐릭터나 스토리의 역사성과 구체성을 살려 실감을 더하되, 하늘의 변화가 곧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여 집단이 제를 올리며 안전을 소망하고, 질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자식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모정, 신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적 기원을 올리는 심정, 말은 바 임무에 충실하거나 아랫사람에 대한 자애로움을 가진 존경하는 대상에 대하여 추앙과 찬양을 올리는 진심 등 인류 보편적 감정은 신라 사회나 현세의 인류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소개한다면, 향가 콘텐츠의 문화할인율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 사례로 드라마 <대장금>부터, 강남스타일, BTS, 천만 영화(베테랑, 7번방의 선물, 택시 운전사, 기생충)를 들 수 있다.⁵³⁾ 이들의 강점을 분석하여 보편적 콘텐츠를 만들어간다면, 향가 콘텐츠는 경주의 많은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글로벌 한 전통무형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캐릭터산업은 고부가가치를 가진다. 캐릭터는 영화나 드라마보다 문화적 이질감이 적고 문화적 할인이 낮은 편이며, 캐릭터 상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확대도 쉽다. 캐릭터를 만들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문구, 의류 등 생활용품에 활용하기도 하므로,⁵⁴⁾ 전문가 감수와 대중적 취향을 반영하여 신라 역사의

53) 나송희·이중훈 외, 앞의 책(2021), 36-37쪽.

감동을 담고 향가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만들고, 대중들이 그 창작 현장에서 그들의 숨결을 느끼며 체험하도록 한다면, 향가 캐릭터산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된 갤러리 이모티콘만을 활용하여, 향가의 내용을 전할 만한 짙은 그림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이나 여타 대중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나갈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욱 정확한 이모티콘들이 만들어져 향가의 흥미로운 교육·홍보 수단이 될 것이다. 캐릭터는 자신이 사건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일어나게 만들 사건에 반응하거나 혹은 둘 다에 해당하는 허구의 존재를 지칭한다.⁵⁵⁾

인물 묘사의 3가지 기능으로는 독자나 관객이 캐릭터가 취하는 행동을 믿게 하는 ‘신빙성’, 구체적이거나 놀랍고 유동적인 ‘독창성’,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면의 궁금증 유발하는 ‘흥미성’이⁵⁶⁾ 있다. <서동요>의 무왕, <헌화가>의 순정공(김순정), <원가>의 신충은 역사성과 신빙성이 강하고, <모죽지랑가>·<도천수대비가>·<우적가>는 구체적 서술로서 독창성이 강하며, <서동요>에 나타난 소문의 결말이나 <모죽지랑가> 대결의 결말, <원가>는 잣나무의 고사가 이끄는 정국의 변화 등은 흥미성이 높다. <우적가>의 영재는 창검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생사를 초월한 외향성과 도적까지 감화시키는 적극성을 가졌고, <찬기파랑가>의 기파랑은 옳고 그름에 분명한 캐릭터, <모죽지랑가> 설화의 익선은 변덕스럽거나 논쟁적이거나 분노와 불안, 슬픔과 공포, 불안정성을 가진 신경증적 인물로 형상화할 수 있다.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로 <원가>의 신충이나 <모죽지랑가>의 죽지랑을 들 수 있고, 의리 있고 성실한 인물로 <모죽지랑가>의 득오를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54) 고정민, 『문화콘텐츠산업의 이해』, 이다북스, 2021, 573-574쪽.

55) 로버트 맥키, 이승민 옮김,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 민음인, 2023, 36쪽.

56) 로버트 맥키, 이승민 옮김, 위의 책(2023), 147-148쪽.

다음은 현재 나와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향가 작품의 요체를 전달해본 것인데, 내용에 딱딱 맞아떨어지도록 몇몇 이모티콘만 다시 그려낸다면 향가의 핵심을 쉽게 전달하여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있는 이모티콘을 활용해도, 향가의 주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시대와 복식과 상황을 맞춘다면 전달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서동요> 이모티콘의 경우,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서동이 신분에 높은 선화공주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공주를 음해하는 <서동요>를 불렀으니, 이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상대를 음해하는 <얼레리 풀레리> 동요와 흡사하다. 그래서 괴롭히는 행동을 통해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안으로 감추는 이모티콘을 고른 것이다.





6) 향가문학관의 건립과 운용

2024-2025년에 국립한국문학관(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2, 2층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개관의 취지로 “국내외의 한국문학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복원, 관리, 전시, 연구, 교육, 연수, 기타 활용을 통하여 문학 유산의 계승과 문학 활동의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 문학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문학 창작과 향유를 증진 시키고자 한다.”를 내세웠고, 주요사업에는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자료의 수집 및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문학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교육 연수 사업이나 활동,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출판·홍보·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온라인문학관 설치·운영, 모바일 앱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문학에는 여러 하위범주가 있는데,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려하여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체계적인 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 전시에 머물지 말고 대중들이 한국문학사의 주요 흐름과 시대별 대표 작품들을 보고 읽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문학실과 고전문학실에 시, 소설부터, 극문학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다양한 면모, 현대적 재현 자료들 가운데 자료를 엄선하여 디지털이나 실물 전시함으로써 한국문학을 알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의 한국문학관에 문학콘텐츠를 최대한 전시하되, 다 수용하기 어려울 터이므로 향가·시조·향가문학관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여야 한다. 향가문학전시실 건립은 경주지역이 최적이다. 향가문학관의 세부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가문학관 : ❶ 중등 교과서 향가 대상, 문헌 자료실(삼국유사와 향찰, 이두 借字 表記法 문자 해독 체험, 양주동/김완진 등 해독자의 연구 과정과 요체를 대중성 있게 설명) ❷ 작품 해설관 ❸ 향가 음악관(불교계 향가와 동아시아 불교음악) ❹ 향가 미술관 ❺ 향가 제재 현대 창작실(현직 작가들의 창작물, 학생 창작 수용, 교육 콘텐츠 수용, 관심 제고) ❻ 향가 기반 문화 콘텐츠관(스토리텔링, 영상 자료) ❼ 향가 게임방 ❽ 향가 캐릭터관(내용에 근거한 캐릭터 만들기) ❾ 향가 공예 예술관(고무 또는 나무 판각, 직접 체험관, 기존 전문가 예술 서각 인쇄 체험, 다양한 색깔, 디자인 인쇄물 가져가기) ❿ 향가 퀴즈관(보편적 향가 지식, 향찰 해독) ⓫ 향가 VR체험관(입체적, 향가 스토리 반영, 음악/동영상 종합 체험, 신라역사 향가 타임머신) ⓬ 향가 관련 창작/배경 공간 야외 체험 자료 종합관(스탬프 체험, 공간 영상 등) ⓭ 전문 합창단 정기 향가 공연/뮤지컬 등 예술 공연(영상 공연), 세대별 합창단 정기 공연 ⓮ 향가 벽화마을 소개관(황성공원 향가 표지판을 그림 예술 자료를 활용하여, 서사와 관련된 향가 창작 공간에 벽화로 만들어 전시하고, 그 자료를 소개함) ⓯ 향가 미인관(향가 관련 설화에 등장하는 수로부인, 처용의 아내, 선화공주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문예, 예술적 창작 기반을 새로 만들어나감)



<모죽지랑가>가 향가 게임방에 오를 여지가 많다. 화랑 출신 죽지랑은 득오에 대한 공감능력이 빼어난 다정한 성격으로, 인간적이고 관대하고, 그 부하 득오는 죽지랑의 보살핌에 대하여 고마움을 아는 성격이다. 반면, 익선은 반사회적(다른 사람, 사회 책망), 이기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비타협적이며, 정직하지 못하다.(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사익을 취함) 그리고 자기 잘못의 대가를 아들에게 받게 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성격의 소유자로, 소유욕·허영심이 강하여 馬具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우적가>의 원성왕은 극적 과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고, 재위 당시에도 갖가지 사회 변혁이 생겨났으며, 뒷날(헌덕왕14년 3월) 周元의 아들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당시의 치열한 왕위 다툼과 그 후 유증과 함께 작품의 창작 배경을 그려간다면 신라 사회 분위기에 맞는 게임 스토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다.

7) 향가 스토리텔링의 활성화

(1) 향가 기념사업

경주에서는 향가 원전과 풀이를 나무에 새겨 10개 공공 기관에 걸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⁵⁷⁾ <안민가>는 임금과 신하·백성이 맡은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언을 담았기에, 각자 역할에 충실하여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경주시청 별관에 그 서각(書刻)을 걸었다.⁵⁸⁾

처용가는 아내를 찾아든 역신의 재앙에 대해, 처용무·처용희로 대응한 예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예총 경주지회(정수암 글씨, 송승만 새김)에 걸었다. <혜성가>는 혜성의 변괴가 나타나면서 왜가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가 떠돌자, 향가의 신통력을 믿어 향가로써 민심을 위무하니

57) 선애경 기자(violetta22@naver.com), 『경북신문』 2023.02.23.

58) 군위군청 계단에는 <안민가> 중 결구인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 면, 나라는 태평하리니”라는 구절을 적어서 민관이 함께하자는 군민의 슬로건을 만들었다.



경주시청 경주시의회 입구에 걸린 모죽지랑가 서각. <모죽지랑가>에 나오는 죽지랑이 득오를 지성으로 살피어 추앙의 대상이 된 것처럼, 경주시가 모든 시민의 마음을 잘 보살피라는 기원을 담았다.

혜성이 사라지고 왜군도 제 나라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므로, <혜성가> 서각(김성희 글씨, 한중왕 새김)은 경주경찰서에 걸어 민생 치안과 국가안위에 대한 상시적 근심을 담았다.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고 극락정토를 향해 정진한 것처럼, 도서관을 찾는 모든 사람이 각자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⁵⁹⁾ 경주도서관에 비치하였다.

(2) 향가 대중서 발간

향가는 차자표기법의 해독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중등학교에서 그 풀이의 난이도를 실감하기 때문에 대중서에 대한 시도 또한 쉽지 않다. 100여 년 동안 노력의 결과로, 어학적 풀이 또한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⁶⁰⁾이므로, 향가교육은 서둘러 문학적 감성을 자극하는 문학교육으로 방향 전환해야 하고, 친근한 역사와 문화유산 자료, 문화예술 자료를 통해 향가를 예술과 관광 콘텐츠로 인식되어야 한다.

향가 대중서로 먼저 박노준의 『향가』(열화당, 1991)가 있다. 우리문학의 큰 자산을 교양인들과 격리시켜 둘 수 없다며, 역사·내용·형식은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도흠의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는 <혜성가>를 용천사가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잡은 것으로, <안민가>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대해 경

59) 김억조, 향가 10수 서각 작품의 의의, 『2022 향가 서각 작품』, 경주문화원·경주시, 2022, 26쪽 참조.

덕왕과 충담사가 서로 다른 방법과 해법을 가진 것으로 설명했다. 당시의 시대를 읽고, 작품에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여 독자들에게 다가선다. 이형대의 『신라인의 마음, 신라인의 노래』(보림, 2012)는 대중들에게 향가에 담긴 신라인들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지혜와 상상력을 전하고자 했다. <서동요>를 가난한 청년의 꿈과 사랑, <혜성가>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고 소개하면서 향가와 관련 서사를 엮어 설명했다. 박진환의 『향가기행』은 사천왕사지, 반월성, 분황사, 흥륜사, 석장사지 등 향가 관련 유적지와 함께 향가이론을 설명하고 있기에 답사에 도움이 될 만하다. 이임수의 『향가와 서라벌 기행』(박이정, 2007)에서 ‘월성왕궁의 향가’, ‘길을 가다가’는 향가를 창작 공간에 따라 소개하고, ‘기도하는 삶’, ‘인생은 덧없어’, ‘나를 그리며’는 향가의 내용에 따라 설명하면서 몇몇 답사 공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신재홍의 『향가서정여행』(월인, 2016)은 향가의 연구 결과와 답사 공간을 함께 소개하는데, 자신이 해독하여 문학적 해석을 더한 향가 작품의 정서와 의미를 장소여행과 함께 전달함으로써 감회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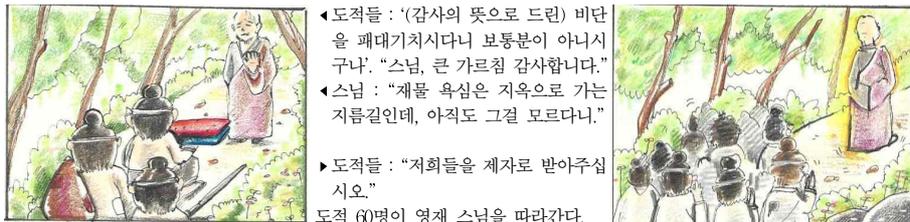
일반을 대상으로 한 대중도서 외에, 학습만화 형태로 고전시가를 다루는 중에 향가 몇 편을 그린 도서가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향가 소개 도서로 권영상 글, 황인욱 그림 『향가와 고려가요』(살림어린이, 2008), 장유정 구성, 민유이 그림, 『선화공주와 서동요』(재미북스, 2005)가 있다. 한자능력시험 대비를 위해 만든 책자로 국사교육교재개발원 편, 『꽃보다 아름다운 수로부인』(킹덤하우스, 2008)이나 『월명사의 도술가와 제망매가』(킹덤하우스, 2008) 시리즈가 있다. 현재에도 확인 가능한 향가 관련 공간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도 있고, 시가 작품이나 설화에서 유추하여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사진 자료와 그림을 적절히 조화하고, 교양을 증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 일관되게 소개하려는 기술 방식이 필요하다.



영재 스님 : “90년 인생, 삶은 이다지도 부질없구나.”
 도적 : “가진 것을 다 내놓으시오.”
 스님 : “옛다, 무엇이든 다 가져가거라.”
 도적들 : “이런 민털털이! 오늘 재수움이 붙었구나.”



스님 : “결결결. 창칼로 지은 이 수많은 악업을 어찌할꼬?” 향가 우적가를 부른다.
 도적들 : “스님, 미친한 저희들의 죄업도 씻을 수 있었습니까?”
 스님 : “있다마다. 뉘우치고 반성하면 누구에게나 다시 기회가 있지.”



◀도적들 : (감사의 뜻으로 드린) 비단을 패대기치시다니 보통분이 아니시구나. “스님,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스님 : “재물 욕심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다니.”
 ▶도적들 :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도적 60명이 영재 스님을 따라간다.

위의 <우적가>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우적가>는 향찰 원전부터 缺字가 있어서 그 내용 파악이 힘든 대목이 있지만, “지리산으로 수행을 떠나던 영재스님이 도적을 만나서 향가를 불러 그들을 악업에서 건져 가르침을 전하는 과정”을 대의로 삼았다.

충담사의 <안민가>는 임금에게 임금과 신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임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이 충언에는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마음도 들어있으므로,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볼 여지도 있다. 왕이 충담사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

법을 물은 것은 정국에 대한 새로운 해법 제시를 바랐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궁리해둘 필요도 있다. 문학이란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책문(策文)에는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광해군)와 같은 질문이 많았으니,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두는 것도 문학 교육이 감당해야 할 주된 역할이다. 이 질문에 임숙영이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陶甄) 임금의 정치를 보좌하는 것(變理)은 재상에게 맡기고, 적을 물리치고(折衝) 난리를 평정하는(勘定)” 일은 장수에게 맡기며,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고(論思) 올바른 도리로 지성껏 군주를 인도하는(啓沃)⁶⁰⁾ 일은 가까운 신하에게 맡기고, 행정을 펴서 자애롭게 어루만지는 것은 수령에게 맡기십시오.”라고 답한 일⁶¹⁾은 경덕왕의 질문에 대한 충담사의

60) “祚命于晉, 世有哲王. 弘濟區夏, 陶甄萬方.”(『晉書』樂志 上), “立太師太傅太保, 茲惟三公, 論道經邦, 變理陰陽”(『尚書』周書 周官), “夫修之於廟堂之上, 而折衝乎千里之外者, 其司城子罕之謂乎”(『呂氏春秋』召類). “我大陳之創業, 乃撥亂而爲武, 勘定艱難, 平壹區宇…….”(『隋書』, 虞世基傳), “朝夕論思, 日月獻納”(班固, 『兩都賦』序), “啓乃心, 沃朕心.”(『尚書』說命 上).

61) 김태완,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2004, 49-51쪽.

답과 흡사하다. “도적이 떼를 지어 주민을 약탈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成群之盜 勦掠居民 何歟)라는 예종(1469)의 질문에 대해,

신이 듣기로는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밥에 의지한다.” 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옛 성왕들은 모두 백성이 잘 살도록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순임금과 주의 문왕은 “때에 따라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백성을 마치 다친 사람처럼 돌보았다.”한 경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성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⁶²⁾

라고 한 채수(蔡壽)의 답은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들이 윗사람들의 질문에 화답하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 시대를 뛰어넘어 격조를 갖춘 상하 소통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3) 향찰해독사(鄉札解讀史) 스토리텔링

1918년 일인 학자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처용가> 해독을 기점으로, 1923년 권덕규, 1924년 신채호, 1929년 오구라 신포이 해독의 대략을 소개하면 대중의 눈길을 끌 수 있다. 양주동 박사가 일본학자에게 향가연구의 기선을 빼앗긴 일을 두고 얼마나 통탄했는지를 알려주는 일도 중요하다. 향찰이나 이두·구결을 쉽게 풀어 설명⁶³⁾하면 대중성이 있을 것이다. 향가문학관이든 어디든 일정한 향가 아카이브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해질 일이다. 다음은 향가 초기 해독사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62) “臣聞 國依於民 民依於食 則民者 國之本也 食者 民之天也 故古之聖王 莫不以民事爲重 其曰食哉惟時 其曰視民如傷者 此虞舜 周文之所以爲聖王也”(蔡壽, 養民均賦弼盜, 『懶齋集』 卷1, 策, 『韓國文集叢刊』 15, 389쪽).

63) <https://www.youtube.com/watch?v=Lo7IYdeJ2fw>(황선엽, 온라인 한글문화강좌 3회차, 향가의 이해, 표기와 해독을 중심으로); 박재민, 「고등학교의 訓借字·音借字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2012, 149-171쪽; <https://www.youtube.com/watch?v=Rtya-BI-Mto>(서성호, 온라인 한글문화 강좌 4회차, 고려의 문자 생활 -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 표기).

① 이 천여 년래 창해의 遺珠와 같이 전해 온 희한 고귀한 고가요가 첫째 우리 선민들의 그릇된 自文學 貶示, 둘째 그 표기(借字 소위 吏讀)의 난해성에 의하여 이래 우리 학자로서 아무도 그 해석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랬던 것이 1918년 이래 일본인 학자 金澤鮎貝씨 등이 구중 <처용가> 등 일부 작품을 해독했고, 그 뒤 1929년 小倉씨의 역작 『향가 및 이두의 연구』가 향가 25수를 전부 시독하여 당시 학계의 파천황이 되었고, 그 저서로 그가 학위, 일본학사원상, 천황상까지 받았다.

그때 내가 약관 27세의 영문학 교수로 평양 승전에 재직 중 우연히 그 저서를 보고 깊이 감탄 발분한 바 있어 영문학과 즐기던 술 장기판을 걷어치우고 향가연구에 필생의 심혈을 바치려는 구구한 ‘願’을 세운 것과 그 뒤의 여간 고심한 학적 행정(行程)은 이미 여러 곳이 그 회상기를 썼다. 그 결과 소창씨의 해독이 대부분 오류임을 지적한 나의 논문 <향가 해독에 취하여>가 저들의 전문지 『청구학총』 19호(1935.2)에 발표되어 저들과 우리의 학계를 진감(震撼)시켰고 그에 관하여 내 학설을 우단(右袒)한 김택 씨의 평문 및 자설의 오류를 전적으로 솔직히 승인한 소창 씨의 답문이 『사학잡지』에 발표되어 학설의 정오가 결정적으로 판가름되었다.⁶⁴⁾

위 향찰 해독에 대한 양주동 선생님의 회고문에는 1918년에 일본인 학자들이 향가 해독과 연구를 먼저 시작하여 일본 천황상까지 받은 일에 대한 분개를 담았고, 그 일이 자신이 향가를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 1935년에 자신이 향가 연구를 시작하여 소창진평의 오류를 바로잡아 나간 것에 대한 느낌은 단순히 자부심을 넘어 자기도취와 같은 느낌까지 든다.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갔으니,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한걸음 내딛기도 조심스러워, 의식적으로 보 무당당하게 내딛은 발걸음이 그리 비취졌을 수도 있겠다.

② 소창(小倉)씨의 저서를 읽은 다음 날 나는 우선 장기판을 패어 불

64) 梁柱東, 古典文學의 世界的 進出, 『韓國論爭史』 II 文學 語學, 靑藍文化社, 1978, 394쪽.

때고, 영미 문학서는 잠깐 কে 속에 집어넣어 두고, 상경하여 한글 고문헌 장서가 여러분 고(故) 일사 방종현(方鍾鉉). 육당 최남선, 일석 이희승(李熙昇)·가람 이병기(李秉岐) 제씨를 역방(歷訪)하여 그 귀중한 문헌들을 한두 달 동안의 기한으로 빌었다. 그 국보급 장서들을 아낌없이 빌려주던 제가의 후의를 나는 잊을 수 없다. 한 가지 삽화(挿話) -내가 그 책들을 빌려 큰 보따리 짐을 만들어 등에 지고 아침에 킁킁 걸어 역으로 나가는 길에 위당 정인보(鄭寅普)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는 내가 짐꾼이 되었음에 깜짝 놀라,

“아, 무애(無涯)! 그 등에 진 것이 무엇이오?”

“책이오”

“책이라니? 무슨 책이기에 짐꾼에게 지우지 않고 몸소 지고 가시오?”

“예, 가만히 두고 기다려보십시오. 몇 달 뒤에 우리 문화사상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나리다!”

내려가서 우선 한 달 동안은 문헌 수집(蒐集)에 골몰하고, 다음은 글자대로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여, 머리를 싸매고 여러 문헌을 섭렵·연구한 결과 약 반년 만에 우선 소창씨 석독(釋讀)의 태반이 오류임과 그것을 논파(論破)할 학적 준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악전·고투 무리한 심한 공부는 드디어 건강을 상하여 대변에 극심한 폐렴에 걸려 발열이 며칠 동안 40°를 넘어 아주 인사불성, 사람들이 모두 죽는 줄 알았다. 아내가 흐느끼고 찾아온 학생들이 모두 우는데, 내가 혼미(昏迷)한 중 문득 후닥닥 일어나 부르짖었다.

“하늘이 이 나라 문학을 망치지 않으려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⁶⁵⁾

“해방이 되고 4년제 대학이 설립되면서 양주동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다. 그는 경향 각지의 대학에 두루 출강하며 국문학과 영문학을 가르쳤다. 많을 때는 주당 40시간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히 초인적인 정력과 열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교통편도 좋지 않은 때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노라면 결강을 하거나 강의 내용이 부실할 법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수업을 하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강의

65)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1965, 891-892쪽.

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선 채로 빵을 먹으며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그는 강의 중 신명이 나면 신라가요나 시조창을 해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처용가> 강독할 때는 덩실덩실 춤을 쳤다. 그가 하도 빠르게 말을 하는 데다 침을 튀겨 강의실 앞자리는 늘 비어 있었지만, 강의실은 항상 만원이었다. 당시 그의 강의를 명강의로 소문나 타 대학 학생들이 청강하러 그의 강의실을 찾았기 때문이다.⁶⁶⁾

③ 그동안 자신의 『고시가연구』에 대한 「새 사실의 발견」이나 「수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자랑까지 곁들인 것이었다. 그러면서 양(梁)씨는 「모씨」, 「K씨」 등의 익명을 써가며 이들이 「나의 구견(舊見)에 칠을 하여, 신설(新說)이라고 내놓거나 “학적으로 통쾌한 일이 있을 때, 불쾌한 트집을 잡았다”고 비난하고 “이번에 또 어떤 알곳은 불쾌가 짝하게 될지 어수선하다”면서 「일절(一切) 비평사절」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모씨」로 지적된 인사는 이승녕(李崇寧)씨였다. <고전주석(古典註釋)의 과학적 태도> 제하의 반박문에서 이씨는 “만일 모씨를 시비하는 잡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선전과, 비판을 기피하는 학자적 모랄에 기인하며……방담(放談)과 실언의 붓을 삼감이 없음에서 일어난 부산물”이라고 못 박고 “내 것이 옳다고 내세우는 모씨의 학풍에는 「과학하는 태도」란 약에 쓰려고 해도 없다”고 통박했다. 이어 이씨는 “향가해석(鄕歌解釋)은 신라어의 해결과 당시의 한자에 관한 운서의 연구 없이는 여하한 학자나 세계적 천재라도 완전을 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의 「△」·「악」 설(說)에 대해 지상에서라도 답하라”고 양씨를 다그쳤다.

양씨의 논전은 양씨의 <희희기(嘻噫記)>와 이씨의 <양주동(梁柱東)씨에 답한다>로 이어지면서 4·19의 열풍마저 아랑곳없이 가열되어 갔고 학문적인 쟁점은 더욱 날카롭게 부각되어 갔다.⁶⁷⁾

위는 이승녕이 당시 양주동의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이 매우 비판적 어조로 적은 글이다. 향가 해독은 아무리 빼어난 사람이라도 분명하

66) 장영우, 『인간 국보 양주동』,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21-222쪽.

67) 李崇寧, 古典註釋의 科學的 態度, 『韓國論爭史』Ⅱ文學 語學, 靑藍文化社, 1978, 391쪽.

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겸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지로 격양된 문체를 활용했다. 뒤에 김완진 교수는 향가 연구사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4) 적어도 양주동 이후에 있어서는 최대의 개독(改讀)을 하였노라고 자부하면서도 향가 해독은 이제 겨우 그 첫 고비를 넘어설까 말까 하는 단계에 있다고 필자는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다시 다듬어지는, 혹은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겪어야 하리라고 말한다면 너무 비관적인 것처럼 들릴는지 모르지만, 학문의 발달도 한 계단 한 계단 짚어 올라가는 것이지 결코 몇 십 계단을 단숨에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보면, 필자의 말이 한낱 과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⁶⁸⁾

김완진의 자부심과 겸양이 담겼다. 그는 『삼대목(三代目)』의 기적적 출현 같은 획기적 계기가 없는 한, 연구자들은 자료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방법의 정밀화와 다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김완진 이후로도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 이젠 명실상부 거의 90%에 가까운 해독에 이르렀다. 이젠 그 해독을 바탕으로 향가를 문학으로 감상하고, 역사로 확장 이해하면서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때이다.

4. 마무리

고전을 재창조하여, 당대성과 현재성을 연결하는 일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창작 영역에서도 새 가능성을 열 수 있으며, 무한한 문화콘텐츠 재생산에 이바지한다.⁶⁹⁾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은 향가에 담긴 마음이 요즘 우리들의 소망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재현해두고 보고 듣고 느끼고 가르치자는 취지다. 향가에는 불교적 염원, 개인·국가적 소망, 인물에

68) 金完鎭, 鄉歌의 解讀과 그 研究史的 展望; 金烈圭·申東旭 編, 『三國遺事의 文예적 研究』(새문사, 1982), III-62-64쪽.

69) 나정순, 『고전시가의 전통과 현재성』, 보고서, 2008, 219-220쪽.

대한 추앙·찬양도 있고, 사랑과 존경도 있다. 시대적으로 천 년이 넘는 거리가 있지만, 나라의 안녕, 治病의 기원 등은 인류의 보편적 감정이다. 향가 대중화·현재화의 출발은 바로 이 향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시대적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 AI는 인문학을 먹고 산다고 하고, 예술가형, 개척정신의 소유자,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미래를 이끈다고 한다. 이에 콜롬비아나 예일대 의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야기 치료와 예술 감상 훈련을 중시한다. 향가는 문학과 인문은 물론, 문화유산·종교·예술·역사·철학·사회학적 접근이 다 가능하다. 새로운 미래에는 예술적·감성적 능력으로 훌륭한 스토리를 창조하는 하이컨셉, 공감을 통해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거나 개인의 개성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도출해내는 능력,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끄는 하이터치 능력⁷⁰⁾을 강조하므로, 역사성과 문학성을 함께 가지는 향가는 활용도가 높다.

그러므로 이제 1980년 해독에서 더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있는 향가교육은 100년간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현대어 해독의 원전 텍스트부터 확정해야 한다. 이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가무악, 연극 등 향가 기반 모든 예술 활동의 출발점이다. 중등 교육은 진척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역사를 소환하고 문학적 상상, 창의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읽는 교육’에서 ‘느끼는 교육’으로 입체화해야 한다.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이미 셀 수 없이 만들어진 향가 기반 예술작품을 모아, 원작의 취지를 잘 살리고 활용도도 높은 예술작품을 선정하여 널리 홍보하고 감상해야 한다. 국립국악원·문숙회·윤소희 등 국악인의 주도하에, 송소희·송가인·조수미·윤세연·최예림 등 널리 알려진 예술인과 숨은 고수들을 두루 발굴하여 향가의 정조(情調)를 살린 기존곡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창작곡을 만들어 중등교육에 널리 활용할 음반이나 영상

70) 다니엘 핑크, 김명철 옮김, 『새로운 미래가 온다 -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6가지 생각의 프레임』, 한국경제신문, 2020, 79-81쪽.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전통을 재현하는 일만 고집하지 말고, MZ 세대의 성향에 맞게 흥미로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주의 향가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더욱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다듬어 종교관광, 유산관광과 연결하고, 예술·축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문화관광도시의 내적 역량을 축적한다면, 향가는 경주나 신라를 넘어 세계문화콘텐츠로 나아가는 황금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大方廣佛華嚴經』 卷40, 普賢行願品 懺除業障.
최치원 찬, 최영성 校註, 『校註 四山碑銘』, 이른 아침, 2014.
曇無讖, 『大般涅槃經』 卷19, 梵行品第八之五 ; 『高麗大藏經』 9, 高麗大藏經研究會, 1985.
周敦頤 지음, 朱熹 주석, 권정안·김상래 역주, 文辭, 『通書解』, 청계, 2000.

2. 논문 및 단행본

- 고정민, 『문화콘텐츠산업의 이해』, 이다복스, 2021.
권영상 글, 황인옥 그림, 『향가와 고려가요』, 살림어린이, 2008.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김나영·박상영 외, 『콘텐츠 개발의 현장』, 푸른사상, 2011.
김억조, 향가 10수 서각 작품의 의의, 『2022 향가 서각 작품』, 경주문화원·경주시, 2022.
金完鎭, 鄉歌의 解讀과 그 研究史의 展望 ; 金烈圭·申東旭 編, 『三國遺事의 文藝적 研究』, 새문사, 1982.
김태용, 남해 금산, 『생성 예술의 시대』, 동아아시아, 2023.
나송희·이중훈 외, 『ALL ABOUT 문화콘텐츠』, 나무자전거, 2021.
나정순, 『고전시가의 전통과 현재성』, 보고서, 2008.
노중국, 『역사의 맞수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지식산업사, 2020.
斷石山 神仙寺 造像銘記 ; 신중원, 모죽지랑가의 역사적 배경, 『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2004.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1965.

- 梁柱東, 古典文學의 世界的 進出, 『韓國論爭史』Ⅱ 文學 語學, 靑藍文化社, 1978.
- 李崇寧, 古典註釋의 科學的 態度, 『韓國論爭史』Ⅱ 文學 語學, 靑藍文化社, 1978.
- 박성봉, 『대중예술 진정성의 미학』, 북섬, 2015.
- 박재민, 「고등학교의 訓借字·音借字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2012, 149-171쪽.
- 서철원, 『한국 불교시의 기원 -의상과 원효 그리고 균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서철원, 「2022 신라 문학 연구의 세 갈래 길 -사상, 소통, 확산」, 『신라학리뷰』 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3, 113-140쪽.
- 宋芳松, 『韓國音樂史論攷』,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 신종원, 『삼국유사 깊이 읽기 -우리 고전으로 별이는 잔치 열 마당』, 주류성, 2019.
- 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123쪽.
- 圓仁 著, 申福龍 譯, 『入唐求法巡禮行記』, 정신세계사, 1991.
- 윤소희, 『세계 불교음악 순례』, 운주사, 2021.
- 윤소희, 『입당구법순례행기』 신라인의 불교의식과 음악(1), 『晩堂李惠求 博士 百壽頌祝論文集』, 동간행위원회, 2008, 411-434쪽.
- 윤소희, 「신라인의 불교의식과 음악Ⅱ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하여」, 『한국음악연구』 41, 한국국악학회, 2007, 167-184쪽.
- 윤소희,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민속원, 2013.
- 이가영(seri), 『만화로 읽는 수능 고전시가』, 꿈을 담은 틀, 2015.
- 이강래, 「삼국의 성립과 영역 확장」, 『한국사 3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1』, 한길사, 1994.
- 이노형, 『한국 전통 대중가요의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4.

이장웅, 「신라 元聖王의 身空 詞腦歌와 관련 설화의 역사적 이해」, 제16회 新羅學國際學術大會 『향가 신라를 노래하다』, 경주시·신라 문화유산연구원, 2023, 35-69쪽.

장영우, 『인간 국보 양주동』,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조범환,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 2022.

崔南善, 『朝鮮常識問答續編』, 三星文化財團, 197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上)』, 국학자료원, 2006.

황병익, 『노래로 신과 통하다 -향가가 가진 신성한 힘』, 역락, 2021.

황병익, 「신라향가 대중화의 양상과 방향 모색」, 『한국시가연구』 49, 한국시가학회, 2020, 33-77쪽.

로버트 맥키, 이승민 옮김,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 민음인, 2023.

토니 베넷, 박명진·정준영 외 편역, 대중성과 대중문화의 정치학,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6.

3. 기타 자료

서성호, 온라인 한글문화 강좌 4회차, 고려의 문자 생활 -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 표기

(<https://www.youtube.com/watch?v=Rtya-B1-Mto>).

황선엽, 온라인 한글문화강좌 3회차, 향가의 이해, 표기와 해독을 중심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Lo7TYdeJ2fw>)

<Abstract>

Popularization and Directions of Hyangga

Hwang, Byeong-Ik*

I am skeptical whether hyangga, sometimes called the “Silla songs,” can ever be popularized for the general public to enjoy, but looking at the numerous hyangga albums being released and hyangga performances created by diverse art-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Gugak Center, Gyeongju Chamber Orchestra,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of Gyeongju, Samcheok, and Ulsan, it is evident that there have been constant efforts to popularize hyangga. One regrettable aspect is that there is no specific album or performance that remains in the mind. Heonhwaga by Old Man Gyeonwoo was introduced in the novel Eungyo, and the same title film portrayed it. However, considering the film a killer content of hyangga, the cumulative audience of 1.34 million is disappointing.

Therefore, as a way of popularizing hyangga, I have emphasized the need to transform the cultural heritage of hyangga into a tourism resource, enable a simultaneous study of understanding and history of hyangga, and restore and reproduce hyangga singing for art tourism. Secondary education on hyangga should enhance realistic experiences through albums, videos, and other auxiliary materials. Hyangga-related characters and emojis can be good tools to enhance public

* Kyungsung University.

awareness. Or, a hyangga museum can be established for the creative storytelling of hyangga. Although hyanggas were written in a completely different generation, what they intend to say, that is, well-being, religious aspirations, reverence, and remembrance are not so different from what we hope for today. Discussions should start with these kinds of commonalities. The future of hyangga should not be just about interpreting the songs in modern language and exhibiting them for educational purposes; it should serve as a way of recalling history and expanding literary imagination. Well-made works that properly represent original hyangga should be selected through a hyangga archive to introduce to the public.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other gugak performers including Moon Suk-hee and Yoon So-hee, new forms of performances should be made with popular artists, such as Song Ga-in, Jo Su-mi, Yoon Se-yeon, and Choi Ye-rim,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public. The future of hyangga should be more than replicating and passing on the traditions; it should encompass the interests of all generations to create cultural products that will lead hyangga to become a global content

Key Words: Hyangga, religious tourism, art tourism, character, emoji, merchandise, museum, archive standard decoding, storytelling, Gyeongju cultural tourism, global cultural content

■ 논문접수 : 2023년 11월 30일

■ 심사완료 : 2023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23년 12월 18일

